



향후 일본의 어항 · 어장의 정비

하시모토 오사무(橋本 牧) | 수산청 어항어장정비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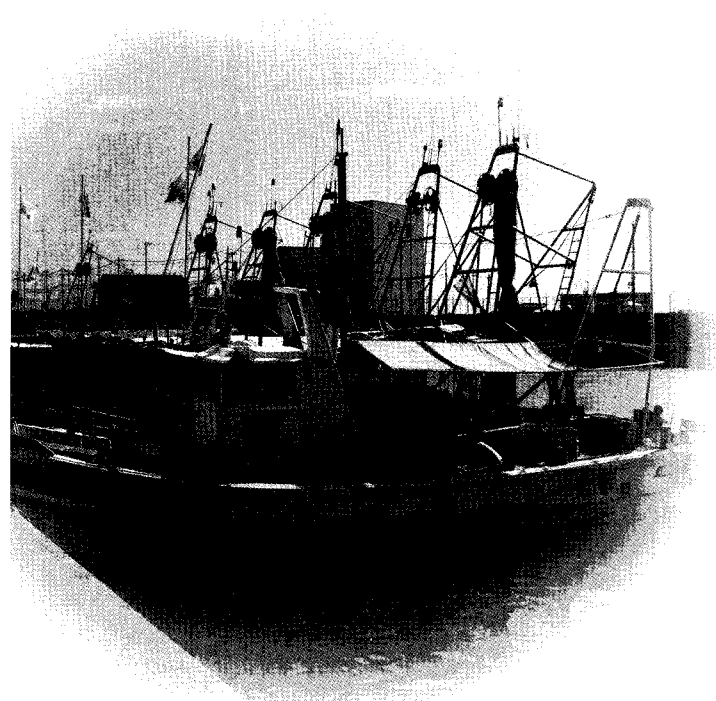
I. 서 론

작년 일본은 정권 교체에 의해 국가의 정책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콘크리트에서 사람에게로」라는 방침아래, 공공사업의 투자를 억제하고, 육아 수당이나 농림수산업의 가구별 소득 보상제도 등의 투자에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중장기적인 정책 중 수산기반정비에 관련된 것으로는 농산어촌을 6차 산업화(1차 산업을 중심으로 2차, 3차 산업을 발전시킴)에 의한 활성화나, 식품의 안전·안심을 확보하기 위한 유통·생산 이력제의 확립과 더불어 식품의 제조 공정이나 유통단계 등의 안전관리나 품질관리의 철저, 또는 조장·간석지의 보전에 의해 환경보전과 수산자원의 유지·증대 등이 예로 들어지고 있습니다.

수산기반정비의 예산 체계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지역 주권」(지금까지 계속 되어 온 중앙집권적인 국가 정비로부터 지역 스스로가 책임을 가지고 생각해 스스로의 힘으로 지역을 부흥시키는 방법으로 옮김) 관점으로부터 새롭게 지방자치체가 농·림·수산의 각 분야에 있어서의 공공사업을 선택하여 일체적인 정비를 실시할 수 있는 「농산어촌 지역 정비 교부금(1,500억엔)」이 책정되어 거기에 어촌 환경 관계나 소규모 어항, 해안 등 사업의 일부를 이행 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2010년 수산기반정비 예산은 822억 2700만엔(전년도 대비 68.6%)으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만, 지금부터 언급하는 「수산자원의 확보를 위한 수산환경 정비」, 「안전·안심할 수 있는 수산자원 공급을 위한 위생관리 향





상」 및 「노후화 대책과 스톡의 유효 활용」 등의 긴급 과제에 중점을 두어 한정된 예산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해야만 하고, 어업인, 지방공공단체와 아이디어를 내서, 중점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수산자원의 확보를 위한 수산 환경 정비

일본의 어업 취업자수는 20만 4천명(2007년도)으로 어선수와 함께 장기적인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주변 해역의 수산자원은 수산청과 (독)수산종합 연구센터가 실시하고 있는 조사에 의하면, 평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계군(系群) 중 약 절반이 낮은 수준으로 자원 상황의 침체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01년부터 어획노력량 삭감, 종묘 방류, 어장 환경의 보전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자원회복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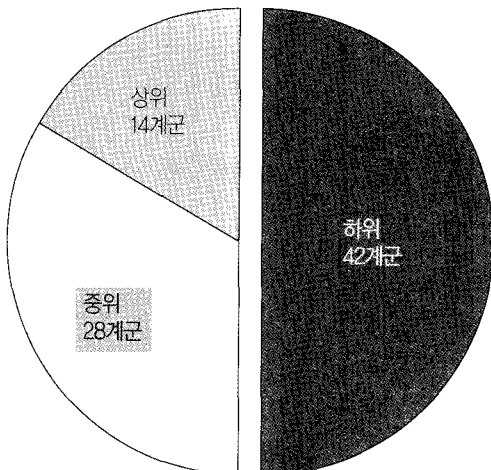
을 책정(현재, 66개 계획이 실시중)하고, 자원 관리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획노력량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종에서 자원회복의 성과가 없는 것을 보면, 일본 주변 수역에서의 수산자원을 적절히 관리·이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획노력량의 삭감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자원의 감소 원인의 해명이나 생존환경의 개선을 중점적으로 종합적인 자원 회복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수산기반정비에서는 수산 환경의 개선을 중점 과제로 인식하고 사업의 추진할 예정입니다.

(1) 연안 환경의 개선

수산자원 감소의 주된 이유는 산란개체의 수가 적고, 적절히 산란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치어의 생존율의 저



주요어종·계군	
상위	공치(태평양북서부계군) 망치고등어(태평양계군, 동지나해계군) 등
중위	전갱이(태평양계군, 대마난류계군) 오징어(동계발생계군) 대게(태평양북부계군, 동해계군) 등
하위	고등어(태평양계군, 대마난류계군) 징어리(태평양계군, 대미난류계군) 명태(동해북부계군, 태평양계군) 등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에 의해서 안전·안심에 대한 요청이 강해지면서 소비 요구도 다양화·고도화 되고 있어,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지축이 위생 관리의 고도화나 생산·유통 기능의 향상 등에 의한 판매력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중, 산란개체의 동향에 대해서는 어업 활동에 의해 실패를 파악하기 쉬운데 비해 산란의 상황이나 치어의 생존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렵고, 알려진 것도 부족하므로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이 때문에 향후, 산란이나 치어의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은 환경개선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 ① 유·소어기에 연안 지역의 조장이나 모래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어패류는 양호한 환경이 사라지면 생육이 곤란하므로 기반정비에 의한 조장의



보전 등과 더불어 어업자를 중심으로 한 환경활동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함으로 효과적인 환경 개선을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 ② 숲·강·바다에 있어서의 물질순환 등 관련성에 주목하여 어장보전을 위한 삼림정비나 천해역에 있어서의 저질의 개선 등을 진행시켜 연안환경을 개선시킬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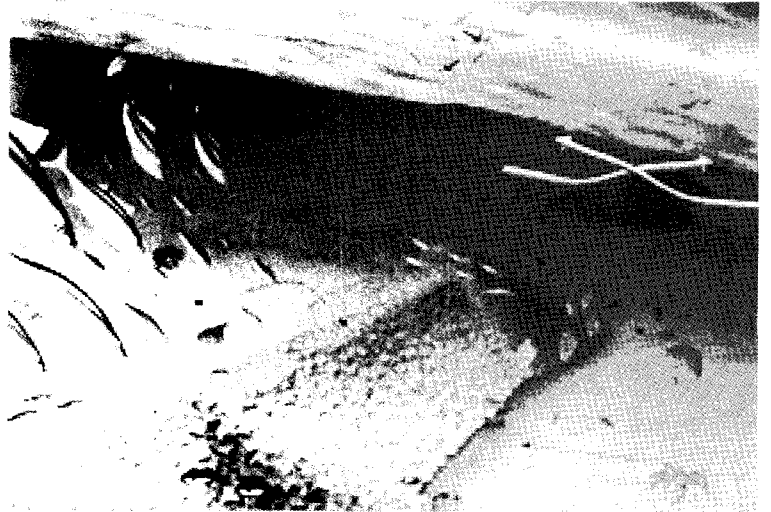
(2) 광역적인 어장 정비

어장정비의 효과를 한층 향상시키기 위해 지금까지의 특정 어종을 대상으로 한 점적인 어장 정비에서 복수의 수산생물의 생활사에 대응한 광역적인 수산환경 정비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올해부터 마스터 플랜 책정을 위한 조사에 착수합니다.





또한 국가가 연안역에서 실시하는 직할어장 정비에 대해서는 일본해 서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게 등 저어류(底魚類)를 대상으로 한 보호육성초의 정비와 함께 올해부터 새롭게 나가사키현(長崎縣) 고도열도(五島列島)해에서 전갱이, 고등어 등의 부유성어류를 대상으로 한 인공 용승류어장의 정비에 의한 기초 생산력의 향상에 착수합니다.



2. 안전·안심할 수 있는 수산자원 공급을 위한 위생 관리 향상

옛부터 일본에서는 생선가게에서 대면판매에 의한 어패류의 유통이 주류를 이루어, 소비자도 구입시에 신선도 등

을 판단하기 쉽고, 거기에 상응한 이용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후 여성의 취업률 향상과 냉장고의 보급 등과 함께



수산기반정비 사업의 효과를 한층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의 정비와 더불어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항이나 시장의 위생관리 소프트웨어의 연구에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만, 어항의 관광 개발, 레크리에이션 이용 등의 소프트웨어 연구에는 한국의 사례 등도 연구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슈퍼마켓의 이용이 증가하여 1980년대에 그 위치가 역전되었습니다. 현재는 약 2/3가 슈퍼마켓에서 구입하고, 나머지는 생선가게, 백화점 등에서 구입하는 상황입니다. 슈퍼마켓에서는 처리·가공되어 패키지 된 형태로 진열·제공되기 때문에 수퍼축에 한층 더 신선도 관리, 엄격한 표시 등이 요구됩니다.

한편, 수산물 산지시장은 어업협동조합이 개설한 소규모의 상점이 많지만, 수산물 가격의 침체, 유통경로의 다양화 등에 의해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 시장 통합이나 노후시설의 개선 등 대응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에 의해서 안전·안심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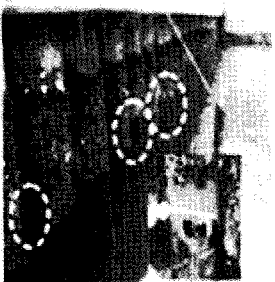
요청이 강해지면서 소비 요구도 다양화·고도화 되고 있어,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지축이 위생 관리의 고도화나 생산·유통 기능의 향상 등에 의한 판매력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산물 유통의 거점어항에 있어 접안시설의 내진화와 같은 정비와 함께 위판장(시장)의 위생 관리의 고도화, 청정해수도입 시설, 피쉬펌프의 일체적 정비 등을 수산기반정비 사업에 의해 추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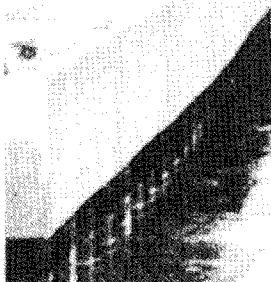
3. 노후화 대책과 스탁의 유효 활용

어항 정비를 시작으로 하는 많은 공공사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되어 6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에 의해 개선이

종래의 대응



심각한 기능저하



재건설

예방보전에 의한 대응



표면도장



전기방식





필요한 시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인구는 최근 감소경향에 인해 중장기적으로 세수입의 증가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시설의 장기 수명화를 도모하여 개선 비용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08년부터 수산기반정비 사업에 있어서도 스톡 매니지먼트 사업(시설의 기능 진단을 실시하여 보전 계획을 작성한 후, 보전 공사를 실시함)을 창설하여 스톡의 유효 활용과 개선 비용의 절감을 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상시설은 어항시설만으로 한정되었지만, 금년도부터는 새롭게 증양식장의 제방시설 등도 메뉴에 넣어 금년도의 예산을 3.6배로 증액했습니다.

II. 결 론

수산기반정비 사업의 효과를 한층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의 정비와 더불어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항이나 시장의 위생관리 소프트웨어의 연구에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만, 어항의 관광 개발, 레크리에이션 이용 등의 소프트웨어 연구에는 한국의 사례 등도 연구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국제적으로 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음으로 이를 위해서 어획노력량 억제 논의만이 아니고, 어장 환경의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을 위한 기술의 축적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본과 한국이 그 분야에서도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